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3월 30일 (제1299 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점검하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릴 때 벽에 붙은 포스터에서 많이 본 문구다. 요즘 경상도 지역에 계속되는 산불을 보면서 ‘점검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구나’ 생각했다.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고 말씀하셨다. ‘시험하고’는 곧 ‘점검하라’는 뜻이다.

그렇다. 점검부재는 사고의 원인이다. 그러니 늘 점검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 먼저는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 한다. 왜? 영이 잘 돼야 만사형통이니까.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고, 심지어는 가짜가 더 빛나기까지 한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두드려보면 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치면 바로 부서져 버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여전하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위기 앞에서, 고난과 핍박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꿋꿋하고, 더욱 견고한가를 보라. 혹 내 신앙이 가짜인지, 참인지 점검하라.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의 비유처럼 친구와 같이, 아내와 같이 있는데, 그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그대로 남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육체 점검도 해야 한다. 나는 한 때 ‘영이 락(樂)하면 육이 쇠하고, 육이 락하면 영이 쇠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을 방치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몸은 한없이 쇠약해졌고, 그 상태로는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크게 깨달은 나는 그 후로 건강을 돌보고 있다. 더욱이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육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쓴다. 미사일도 발사대가 망가지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 담는다. 희망도, 꿈도, 사랑과 행복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고 하신 것이다.

똑똑한 바보가 되지 말라. 몸이 병들면 자유가 되레 고통이 됨을 알고 건강관리에 힘쓰라.

나보다 더 큰일 하는 자가 돼라

매해 진행되는 교단 목회자 세미나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 집회나 예배 때 항상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특히나 탄식하듯 반복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왜 믿지 못하냐!’ 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밝히 보여주건만 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냐는 것이다.

“나 이초석 목사만의 전매특허가 아님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샘플

행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으로 소화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리하여야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행하지 않기에, 하다가 말기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이다. 목사님은 당신의 삶에 행함으로 이루어오셨기에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하신다. 야고보 사도도 ‘엘리아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약5:17), 곧 엘리아가 우리와 달리 특별한 존재라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에 비밀이 있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아,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만큼 간절히,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 그리고 조각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엘리아. 보통 사람과의 차이라면 그의 믿음과 행함에 있다. 목사님과 우리의 차이라면 역시 믿음과 행함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



2025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3월 17일~19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아닙니까? 내 목회 40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안하잖아요. 안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스스로 자주 말씀하시듯,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심플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시대 목사님이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한 말씀으로 정의해주셨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4:9).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자신을 갈아내며 가르치신 말씀, 곧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7:24~27).

듣고 행하라, 실천하라. 언제까지? 내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우리 속담처럼,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비웃음을 당한다(눅14:29)는 예수님 말씀처럼, 포기는 곧 자살이라고 독하게 정의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를 닮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매일, 쉬지 않고 목사님처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하고 행동하는 믿음.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목사님은 2박 3일 동안 총 5회 강의를 통해 강조하고 강조하셨다.

“내 나이에도 날마다 영어를 공부하고, 시대의 대세로 떠오른 AI(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며 목회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너희도 늙었다, 여자가 핑계대지 말고, 배우고 익혀라. 네 삶에, 네 목회에 진보를 보여라!”

목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멕시코 쌀띠요 집회

2025년 4월 8일(화)~18일(금)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4~16)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집회를 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업경영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기업 임원이 보고는 의아한 듯, “목사님이 왜 기업경영에 관한 책을 읽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도 다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기업인입니다. 사장님은 물건을 팔러 세계를 가지만, 저는 예수님을 팔러 다니거든요.”

맞습니다.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이나 교회경영이나 심지어 가정경영과 자신을 경영하는 것 또한 동일한 원칙에 기반합니다. 경영이 됩니까? 경영은 곧 관리요, 관리는 점검을 말합니다. 고로 점검 부재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경영부실로 인해 시장에서 밀리고,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미루거나 점검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은 잠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다

여러분, 고객은 절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맛있어지겠지.’ ‘언젠가 개선될 거야.’ 하며 기다려주는 고객은 없습니다. 그런 고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불량품을 만들고, 맛없게 만들고, 저질의 것을 만든 기업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물건은 많습니다. 음식점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발을 붙들 수 있는 최상의 것, 유일한 것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음식점과 성공한 교회의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음식점이냐고요? 음식점은 육의 양식을 판다면, 교회는 말씀, 영의 양식을 파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공한 음식점은 광고를 잘합니다. 광고와 성공은 동반자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입소문이라는 거요. ‘저 집 음식 맛있어.’ 하며 내 주변의 한두 사람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 파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 동네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며 다니셨다고 합니다. 50년 전 즈음의 일입니다. 아이가 집에 가서 “저 교회 전도사님이 코 닦아주고 사탕도 줬어.” 했더니, 그 아이 엄마가 “저 교회 전도사님은 애들 코까지 닦아주시는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니 소문에 소문을 낚아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7)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입소문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SNS입니다. 사진 찍어 올리면 순식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접속, 공유하니 소문이 뉴스요, 광고인 셈입니다.

제가 낯선 해외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광고 덕분입니다. TV와 라디오, 전단지 등으로 광고를 하니 찾아오는 겁니다. 소문이 나아 찾아올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10:14~15)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성공한 음식점은 서비스가 좋습니다. 선불 때 15초의 첫인상이 15년을 간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러면 기본 나빠서 뒤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주인이 ‘어서 오세요. 뷰가 좋은 창가로 앉으시겠습니까?’ 하면 좋은 인상이 남지요. 또 음식을 가져다주는데 툭툭 던지면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다시 여길 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갔는데 소 닭 쳐다보듯 하면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꾀죄죄한 사람들이 안내를 서고 있으면요?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포장지 시원찮으면 그 물건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경영자이신 예수님이 능력만 강조했더라면 어찌면 땅끝까지 기업이 뻗어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에 사랑을 덧입혔기에 역대 최

고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셋째, 성공한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습다. 음식점은 무엇보다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곰탕집이 있는데, 그 맛이 일품입니다. 언젠가 그 비법을 물어보았더니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온종일 사골을 끓인다고 합니다. 인공감미료 같은 것은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맛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니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교회의 맛은 뭐니 뭐니 해도 설교와 찬양입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쫓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고, 은혜로운 찬양이 더해지면 다른 교회로 못 갑니

다 .

요 즈음 교회들은 맛을 낸다고 인공감미료, 곧 혼적인 지식을 많이 첨가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맛이 있는 듯 하나 곧 질립니다. 최고의 천연재료, 곧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지루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 맛이 질리지 않아 성도들이 많이 먹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고모네 밥도 맛있어야 먹는다’는 옛말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넷째, 성공한 음식점은 환경이 청결합니다. 편안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지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환경이 지저분하면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교회도 편안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편한 목사, 전도사가 되면 안 됩니다. 또 환경이 깨끗하면 성도들도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고, 웃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닙니다. 목사나 전도사들도 웃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금식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없다고 꾀죄죄하면 안 됩니다. 단발이라도 늘 짧아 입고, 다려입고,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공한 음식점은 주차시설이 좋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차를 몰고 찾아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면? 너른 주차장을 완비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입지 조건 중의 하나가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입니다. 도심지에서 자체 주차장을 갖추기 어려우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성공한 음식점은 값이 싸고, 문턱이 낮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 자연스럽게 문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문턱이 낮아서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도, 도둑놈도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고 하셨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해주나 차별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흑인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고 하니 교회 측에서 흑인은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흑인 소년이 교회 앞에서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울지 말라. 나도 아직 저 교회에 못 들어갔단다.”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성공한 음식점은 이벤트를 자주 합니다. 이는 손님을 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나 받겠다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야지요. 구제운동이나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찾아가 구제하고 봉사한다면, 영혼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들 것입니다.

개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르지 않는 자는 퇴출뿐이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나이 든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천사의 말에 ‘아멘’ 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한 것처럼, 꾀박과 고난 중에도 교회의 부흥을 일군 나 이초석 목사를 보고 ‘나에게도 교회 부흥이 이뤄지기를 원하나다’ 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예수중심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믿음의 전염

얼마 전 금요일에배 때 한 간증을 했다. 아내가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 쪽이 항상 아프고 힘들었다.아내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기도 중 발바닥에 동전만한 불이 임하더니 그것이 점차 확산하며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예배 중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전도사가 있었다. 그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예배 중 기도하다 머리에 불이 임하며 온몸이 상쾌해지더니 아픈 몸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몇 주 후 주일 1부예배 때 아내와 전도사가 치유 받았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던 또 다른 분이 그 간증을 듣고 기도할 때 어깨 쪽에 불이 임하여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간증했다.이처럼 믿음의 전염력은 대단하다.마가복음 5장 25~34절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무리 속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더니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믿음의 전염력은 간절한 사람들에게 기적과 축복으로 전염된다.총회장 목사님께서 40년 전 철산리에서 한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전 세계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세계 곳곳에 제자를 삼으셨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전염되고, 그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며 수

천 명씩 모여드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이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전염력을 가지고 예수중심교단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은 염병을 전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행24:5)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을 통한 예수의 전염력은 로마까지 전염시키며 전 세계를 예수의 구원으로 전염시켰다.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삼천 명씩 회개하며 구원을 받고, 4장 4절에는 사도들이 전할 때 오천 명씩 믿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핍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4:19)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이다.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욱더 강력한 예수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 우리, 예수 전하자. 할렐루야!

장영국 목사

:: To Be Succeeded ::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

한 권사님의 신앙 이야기다.예수 믿는 남편에게 시집과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그녀는 잇따른 남편의 사업 실패와 실의에 빠진 남편, 어린 자녀들을 보며 밤마다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죽고만 싶었던 그녀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창 자국과 못 자국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날 그 시로 그녀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담력이 샘솟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한 부부는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가족 모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따로 독립할 때까지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당부, 또 당부했다고 했다. 사위나 며느리를 맞을 때도 예수만 잘 믿으라고 전도하여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받을 그릇을 잘 만들어가라고 늘 가르쳤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 집과 자녀들의 삶에 복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지인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다. 지금도 자신들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시간과 물질,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이다.이 권사님 부부의 믿음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고, 최후에는 내가 만든 작품을 주님 앞에 반드시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나의 몫이고 열매 또한 나에게 돌아오는 법,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 가운데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셔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례들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생각이 결과를 낳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목사님의 잠언 말씀처럼 날마다 내 생각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전대미문의 축복과 나의 작품은 나에게 달려있다. 오늘도 매사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국진 사모

:: 영광에 이르는 길 ::

머스크의 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을 해고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칼에 의해 잘려나갈 공무원과 직원들은 훨씬 많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에 대한 반대여론이 생기고, 심지어는 소송을 통해 그가 진행하는 행정집행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회사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하고, 그가 파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미국의 행정부와 관료들이 타성이 젖어 국가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부패하고 낭비되는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빛이 너무 많아 1년

에 값은 이지만 우리 돈으로 1,4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 국가가 파산할 것으로 판단하고, 트럼프의 지원 아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 일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미국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머스크의 칼은 사람을 참수하는 망나니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고 결별해야 한다.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믿음의 마라톤을 시작한 여러분, 그 여정에 저해요소는 다 잘라버리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쉬지 말고 달려갑시다(마5:29~30).

최성경 전도사



:: 낮은 올타리 ::

목적이 있는 기다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이지요. 어느 날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께 기별을 했건만, 애타는 두 자매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울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나사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적혀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병에 걸렸으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계시며 두 자매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움직이셨습니다.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고난을 겪고, 기다림을 겪으면서 큰 좌절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죽은 나사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엄청난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리석게 예수님이 유하시는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지, 나의 말을 들으신 건지 의심하고 걱정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장수정

:: 목회자 세미나 후기 ::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교회가 되자

세미나를 앞두고 ‘이번에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실까?’ 기대하며 기도원을 향하는 길에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며 반갑게 목회자들을 맞아주었다. 목사님의 사자후(獅子吼) 같은 외침은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직까지 정정하시구나, 우리 교단은 미래가 창창하구나!’ 하는 감사가 절로 나왔다. 어느 교단은 주의 종들이 은퇴하고 후임자와의 갈등과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의 순수성과 열정, 능력을 잃지 않은 목사님 아래 깨어있는 교단으로 한결음, 한결음 교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목회자는 어떻게 변화하고 목회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목사님은 AI(인공지능)시대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교회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을 회복하고, AI를 적절히 활용해서 성도들을 앞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말씀과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불확실한 미래를 AI를 활용해 성도들에게 성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그래서 미래를 이끄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초대교회의 능력과 AI시대를 대처하는 최첨단 교회로 거듭나자는 말씀이었다. 목사님은 이미 믿음으로 성도들의 나이를 30년간 잘라버려 웃음과 격려를 해주셨지만, 그 예측은 과학과 의학이 점점 증명하고 있다. 의학자들은 100세 인생에서 이제 130세 인생으로 평균나이가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목사님은 고령화되는 세대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몸소 제시해주고 계신다. 70대 중반이시지만 40대 기력과 건강으로 제자들의 걱정을 민망하게 만드시며, 예배 때마다 건강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 시대 목사님은 폐회예배를 통해 1980년대 중위연령이 22세였으나 올해의 중위연령은 46.5세로 평균 수명이 24년 늘었다고 하시며, 말씀 중 하나라도 실천하라고 매듭을 지어주셨다. 목사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우리 나이를 30년 잘랐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이다.

믿음으로만 아닌 실제로 현재 60세는 80년대에 35세와 방불하다고 하실 때 다시 한번 믿음과 과학의 조화를 알게 되었다. ‘저 나이에 영어공부를 하시며 2050년까지 로드맵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떤 자세로 있는 걸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과 비교해서 신세 한탄할 시간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진보가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웅장 밑에 약졸 있는 거 봤는가? 웅장 밑에 용병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첨단 목회를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예수중심교단은 최첨단을 준비하며 미래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30년 젊어진 나이로 이제 목사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전대미문의 복을 받아 목사님 선교의 길에 카펫을 깔아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bamaba07@naver.com

:: 빛이 되리라 ::

숨어있는 도둑을 잡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새벽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후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 2~3시간 열심히 일하고 마무리 지을 즈음, 갑자기 심장이 답답해서 책상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어? 몸이 왜 이러지? 어제저녁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누워 잠을 청했다. 20~30분을 누워 있었으나 잠도 오지 않고 증상도 호전되지 않았다. 게다가 쉬다 일어서니 하필 딱 그 순간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 것 아닌가? 피곤할 때 생기곤 하는 그 염증 말이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아~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였고, 찬양을 틀어놓고 30분 정도 방언기도를 더 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어? 왜 내가 귀신을 쫓고 있지 않은 거지?’라는 생각이었다. 평소엔 수시로 귀신을 쫓는 게 일상이었었는데, 아침 내내 귀신 쫓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나질 않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아, 이 녀석이 숨어있었구나. 자기가 들어온 걸 내가 모르게 하는구나. 그러고는 쫓아낼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도록 만든 거였어.’ 그제야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곧 몸이 회복돼서, 간단히 식사하고 러닝을 하러 나갔다. 4km 정도 뛰고 2km 걷고, 총 6km 정도 운동하고 들어와 저녁까지 뽕뽕하게 잘 지냈다는 것 아닌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방언기도를 할 때 떠올랐다. 방언기도가 우리 앞의 지뢰를 찾아내는 지뢰탐지기 같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도둑들을 잘 막아내고 잡아내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다가오는 봄을 겨울이 막을 수 없다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총회장 목사님은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을 영적 산실인 기도원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주제로 2박 3일 간 진행된 세미나의 모든 강의를 총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해주시며,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교역자들이 무뎠던 연장의 날을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첫날 첫 강의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주의 종들이 배척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도 수십 년을 앞서가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공지능(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세대의 모습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 AI라는 기술에 대해 무지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이것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AI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I가 예배에 관여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목사님께서 교육 중 보여주신 한 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영상은 총회장 목사님의 1분 설교 영상을 AI 기술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

다. ‘아! 맞다. AI가 복음을 전하는 매체는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시며 개발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오던 생각이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배타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의 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한 기뻐하리라”(빌1:18). 복음을 설교를 통해 전파하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전파하든 그것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물론 AI가 예배를 집전하거나 기도와 찬양을 인도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일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배척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배 때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이 3년제에서 4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졸업하고자 계획했던 일들을 일순간에 다 접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그늘과 여러 교수님들의 귀한 가르침 아래 1년이란 시간을 더 성장하고 준비될 기회를 주신 것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전대미

문의 축복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믿음을 겸비하면 금상첨화이다’라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세미나 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성도들의 믿음을 담금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종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발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전대미문 축복의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대로 다가오는 계절처럼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변화의 파도를 목사님의 두 친구인 노력과 기도를 뜻대로 삼아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봄이 온 것처럼 따뜻했다가 세미나를 하는 기간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3월 중순에 눈까지 펄펄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겨울이 떠나가기 싫어 마지막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매섭게 추웠던 겨울도 다가오는 봄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단이 있는 한 이 나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2025년 예수중심교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대미문 축복의 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별 생도
95rlaquf@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춘계 산상집회

날자: 4월 28일(월) ~5월 1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문의: 02. 533. 9191